

운동체계에 의한 건축공간 분석에 관한 연구 - 향단과 관가정의 안채 · 사랑채 실내공간 분석 -

A Study on the Analysis of Architectural Interior Space through Movement System focused on Hyangdan and Kwankajung

이금진* 최동혁**
Lee, Kum-Jin Choi, Dong Hyeog

Abstract

'Movement System' is made of the interaction of user and architectural spaces related to each other in order. 'Movement' meant in movement system is possible only in the status of user and architectural space together. Movement created and disappeared by the user is not subordinated to the existing architectural space but becomes the main element of forming movement system. It is required that movement conception applied to architecture should be derived from the essence of movement and this study presents the movement system. To explain the forming process of movement system, A. N. Whitehead's process philosophy theory is at the basis and transformed in architectural aspects. On basis of these theoretical backgrounds, the process of making movement system can be explained. There are unit movement, unit object, and elements for movement process as the basic requirements for movement system, each unit is apprehended by individual operation and the nexus is composed by associative operation of apprehended units. This nexus becomes the object of a new subject and forms multiple nexus. Relation of unit movement and unit object and nexus are apprehended as the continuation and extensive continuum is made. At that time, movement with multiple phases set inbetween systems and extended multiplied. Through above study, movement system is applied to Korean traditional houses.

Keywords : Movement system, Process, Extensive continuum, Space, Volume

주요어 : 운동체계, 과정, 연장적 연속체, 공간, 볼륨

1. 서론

본 논문은 사용자와 관계되기 이전의 건축공간은 동일하고 동질적인 공간들이 단순하게 결합된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연속적이고 비결정적으로 생성되는 사용자의 움직임이 이미 만들어진 고정된 존재로서의 공간들과 관계되면서 진정한 건축의 의미로서 완성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¹⁾.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축공간을 사용하는 운동주체로서의 사용자와 그 대상인 객체로서의 건축공간의 관계를 운동체계 이론으로 조명해 본다. 공간과 운동을 분리

시키고 운동을 제거한 순수공간으로서의 유클리드기하, 주체와 객체의 경험관계를 단절시키는 근대인식론의 이론, 신체성과 시간성이 배제된 공식적 입장에서 닫힌 구조를 성립하여 주체에 대한 문제를 부정하는 구조주의 등 주체에 대한 문제가 간과된 채 발전된 이론들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건축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운동체계는 운동의 주체인 사용자와 건축공간이 관계성을 갖고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체계이다²⁾. 운동체계

*정회원, 수원대 건축공학과 초빙교수, 공학박사

**정회원, 서울대 건축학과 박사수료

1) 건축공간을 분석하는 방법은 공간 자체를 주체로 보고 사용자의 관점을 배제한 상태에서 공간결합적 특성만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대상중심적 파악방법과, 건축공간의 사용자가 주체가 되어 공간 내부와 외부에 연관되는 행위와 운동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운동중심적 파악방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택한다.

2) 베이컨은 운동체계를 무수한 인간행위의 디자인 결과물이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연결조직을 이루는 것이며, 자유롭게 펼쳐져 있는 요소들에 통일성과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한다. Bacon, E. N. Design of Cities, pp.251-261, 본 논문에서의 운동체계는 주체의 운동에 선행하여 고정된 위치로서의 구조주의적 의미가 아니라 운동에 의해 언제나 의미 변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공간에 대한 운동의 질서이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나 그 행위에서 비롯된 모든 현상에서 추상적 체계나 구조가 존재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닫힌 체계에서 이론론적으로 연결되는 대상을 파괴하고 구분론적 구조를 거부하며, 체계적이고 일관된 의미가 아닌, 운동과 생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공간적으로 그 경계를 초월하여 열린 형태를 만드는 후기구조주의적 이론과도 부합된 것이다.

에서 의미하는 운동 *movement*이라는 것은 사용자와 건축공간이 공존하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운동은 사용자에 의해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이며, 운동과 관계되기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건축공간 내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운동체계를 형성하는 전체의 중심이 된다. 건축공간 내부와 공간과 공간 사이에서 지속되는 운동은 건축공간이 이루고 있는 부분과 전체를 포용하게 되고, 따라서 운동에 의해 전체는 부분으로 분할되고 부분은 다시 전체로 재통합되어 부분과 전체는 열린 체계가 될 수 있다³⁾. 이렇게 본 연구에서는 운동체계를 제시하고 운동체계 형성과정을 확립하여 이론적 바탕으로 할 것이며, 운동체계 형성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A. N. Whitehead의 과정철학을 기초로 삼고 건축적 측면에서 변형하여 적용한다.

이러한 연구과정에 있어 한국전통주택을 대상으로 삼는다. 한국전통주택은 간접이 방식에 의한 구조체계의 발전과정과 공간의 분할과 통합, 그리고 이들의 결합적 특성과 채-불륨으로의 확장과 첨가 등의 방법으로 단위공간을 결합해나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각 방들의 기능 및 안채 또는 사랑채영역 등 행위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운동체계 이론을 통해 공간결합 최초의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행위와 움직임이 함축되어 전체적인 운동과정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적합하다. 또한 운동체계의 측면에서 조명할 경우 공간 구조적 특성만으로 분석하는 것과는 차별화된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전통주택을 분석함에 있어 공간결합 자체 또는 구조적 측면에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한계에서 벗어나, 운동과 공간 상호간의 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의미를 운동체계의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다양한 공간구성 기법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관가정과 향단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운동체계를 형성하는 장치들과 운동과 공간, 불륨의 관계를 알아보고 운동체계 유형을 일반화하여, 건축공간분석방법론으로서의 가능

성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II. 운동체계의 형성

운동체계는 공간에 관계되는 주체의 운동에 체계적인 질서를 부여한 것으로, 운동체계를 형성하는 주체는 의미작용이 가능한 공간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운동주체인 사용자와 객체인 건축공간이 관계성을 갖고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운동체계는 물리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공간의 존재적 측면과 그 공간에서 연속적이고 비결정적으로 생성되는 운동의 과정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된다.

1. 운동체계 형성조건

운동체계는 운동의 단편적 요소인 단위행위와 단위행위에 대한 객체로서의 단위대상이 서로 관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요소단위 단계에서 시작된다.

1) 단위행위

단위행위는 운동체계를 형성하는 중심요소이다. 다른 단위행위에 대해서는 객체로서의 존재적 특성이 되고, 단위대상에 대해서는 운동으로서의 생성적 특성으로 작용한다. 존재하는 것으로, 또 생성하는 것으로 모든 단위들과 동시에 관계될 수 있다. 이것은 단위행위란 내적으로는 존재로서 결정되어 있고, 외적으로는 생성하는 과정 중의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고정되어 있지 않은 가능성을 갖고 다른 단위들을 만나서 특정한 체계를 형성한다. 단위대상으로서의 공간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사용자 주체의 단편적 움직임이다.

2) 과정적 요소와 단위대상

운동체계 형성과정에서 단위행위와 단위대상을 완전한 결합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정적 요소가 필요하게 된다. 과정적 요소는 단위행위를 수용하고 이를 공간으로서의

3) Deleuze, G., *Cinema: Image-Mouvement*, pp.35-39, 건축에서의 운동개념은 힐데브란트 Hildebrandt의 동적 시각 *kinetic vision*과 같은 시지각적 측면에서의 운동성이나, 테스틸이나 구성주의 같이 요소들의 동적인 형태 또는 형태 자체의 역동성에 대한 관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또 프로그래밍이나 형태의 해체로부터 운동성을 강조하는 해체주의 건축이나 데카르트 공간에 대한 거부로 기하학적 위계를 전복하고 위상적 변환을 강조하면서 처음과 끝이 존재하지 않는 움직임을 통해 불확실성의 전체구조를 형성하는 카오스(*chaos*)와 프랙탈(*fractal*)에 의해 변형된 형태적 역동성에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그러나 건축에서 운동은 시지각적인 측면을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시각에 의한 운동성은 운동에 의해 파생되는 표면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이고 시각은 운동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으면서도 운동과의 연관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므로 운동은 여기에 한정되어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언제나 변화 가능한 건축형태를 구축함에 있어서도 브리지나 계단과 같은 운동에 관계되는 건축적 장치는 기하학적 체계와 완전히 단절될 수 없다. 따라서, 건축에 적용되는 운동개념은 보다 근본적인 운동의 본질로부터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운동체계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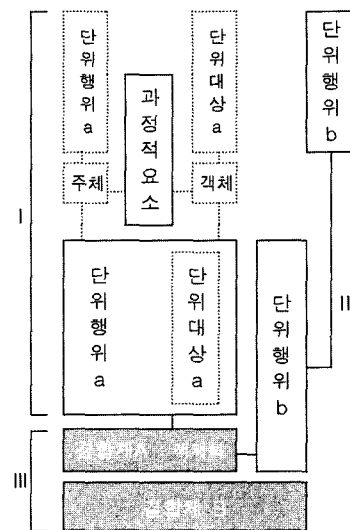


그림 1. 운동체계 형성과정 I: 파악단계, II: 결합단계, III: 결합체의 객체화와 새로운 파악으로의 준비단계

단위대상에 작용하도록 하는 중간과정에 위치한다. 단위 대상에 단위행위를 연결시키고 또 제한하면서, 이들의 관계가 구조화되어 운동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정형식이다. 운동에 관계되는 요소로서의 건축적 장치이다.

단위행위는 공간속의 위치나 시간속의 순간으로 이어지면서 계속적인 변화가 가능한 존재인 반면, 과정적 요소는 유동적인 행위에 한정된 형식을 부여하는 요소가 된다. 과정적 요소는 단위대상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로는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한 존재에 불과한 추상적인 것이므로, 단위대상의 내적 구성요소로서 단위행위에서 단위대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위치해야 가치가 있다.

2. 운동체계 형성과정

단위행위와 단위대상, 그리고 과정적 요소가 개별적으로 파악되고, 파악된 단위들을 통합하는 결합작용에 의해 결합체가 형성되는 과정, 이 결합체가 다시 새로운 주체에 대한 객체가 되어 상호 독립된 결합체 사이에서 다중적 결합체가 형성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운동체계가 확장된다. 단위행위와 단위대상의 관계와 그 과정중의 결합체는 연장과 지속적 특성을 갖게 되는데, 이때 다양한 위상을 갖는 운동과 공간의 체계들은 운동체계로 완성된다.

1) 파악작용

파악이란 주어진 객체를 수용하는 주체의 작용이다⁴⁾. 단위행위와 단위대상이 주체와 객체가 되어 과정적 요소에 의해 구체적인 연관성을 갖고 최초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파악단계이다. 단위행위는 다수의 단위대상들을 흡수하기 위해 그것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단위대상은 생성되지 않는 고정된 요소로 존재하므로, 생성 가운데 있는 단위행위에 객체로서 주어져 서로 관계되면서 의미를 갖는다.

주체에 의해 파악된 객체는 주체에 의해 변형된 객체 이상의 것으로서, 주체에 의해 주체화된 객체, 즉 주체적 형식 *subjective form*이 된다⁵⁾. 이것은 주체와 객체의 의미교환이 파악에 의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에 대한 사용자 주체의 선택이며 운동체계형성의 시작이다.

2) 결합과 위상

결합작용은 개별적인 파악을 전제로 하는 파악의 이차적 작용이다. 파악된 다수의 단위행위와 단위대상들을 통합하여 실제적 결합체 *nexus*를 이루는 과정이다. 결합체로 형성된 후에는 다시 이 결합체가 객체화되어 계속적인 파악과 결합작용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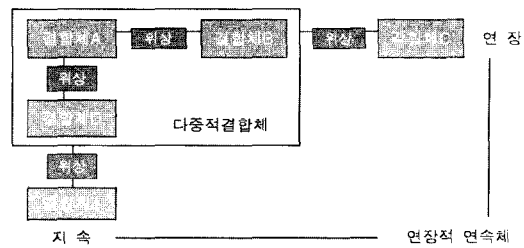


그림 2. 운동체계 형성과정 IV: 연장과 지속

과정을 이어가게 된다. 결합체 내에 있는 객체는 실제적이고 개별적으로 공존하며, 다른 결합체 속에서 기능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객체화된 객체들이 서로 다른 존재들로서, 각각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같다. 객체화된 결합체와의 반복적인 결합은 다중적 결합체 *multiple nexus*를 이룬다. 시간적 · 공간적으로 확대되는 인접성 *contiguity*의 개념을 갖고, 시간적인 종적과정과 그 순간마다 동시적으로 펼쳐지는 횡적과정을 포함한다. 주체의 객체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연속이며 다수의 공간들 사이에서의 사용자 주체의 움직임 결합으로 인해 단일 볼륨을 형성하는 것이다. 공간적 연속에서는 서로 다른 주체의 움직임을 동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파악과 결합단계에서 객체를 흡수하고 주체를 수용하는 관계가 지속되어 다중적 결합체를 이루는 단계에까지 각 결합의 단계마다 위상 *phase*이 결정되어야 한다. 운동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은 연속선상에서의 단계들로 구분되므로, 여기에는 위상에 따른 과정이 필요하다. 위상에는 시간적으로 연속된 위상과정과 이러한 시간적인 순차성에 대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에서의 독립된 위상이 존재할 수 있다. 모든 작용은 분리되고 무관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위상으로서 하나의 지속하는 과정속으로 합체되어 간다. 결합체 사이의 위상들은 연속적으로 조직화되어 열린 체계로서의 전체성을 갖는다.

3) 연장과 지속

결합체가 중복의 관계, 연결과 접촉의 관계, 포함관계, 그 외에 파생된 다른 여러 다양한 관계들에 의해 연속적으로 확장되면, 운동체계가 형성되는 마지막 단계인 연장적 연속체 *extensive continuum*가 형성된다. 행위단위 또는 대상단위의 연장성과 그 과정 중의 결합체가 확장되는 연장적 특성이다. 또 상호 독립된 결합체 사이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관계들은 연장관계의 지속 *duration*으로 파악된다. 공간과 공간 사이, 볼륨과 볼륨사이, 공간과 볼륨 사이에서 발생하는 서로 다른 주체의 모든 움직임의 복합적 양상이다.

여러 결합체로 이루어지는 다중적 결합체를 이루는 과

4) 파악은 철저한 이해를 의미하는 라이프니츠의 파악 *apperhension*에 기원을 둔다. 여기서 파악의 주체인 모나드 *monad*는 다른 모나드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수동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순수 능동적 존재이다.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인식론적인 의미를 존재론적으로 일반화시켜 주체로서의 현실적 존재가 객체적 요소 하나하나에 대한 활동으로 사유화하는 과정을 파악 *prehension*이라고 부른다. 데카르트의 정신적 사유, 로크의 관념에 대한 감각을 일반화시킨 것이며 베이컨이나 버클리의 지각작용을 변용한 개념이다.

5) Whitehead, A. N., *Adventures of Ideas*, pp.297-298.

6) 합체는 발생하다 *arise*. 존재하게 되다 *come into existence*라는 의미의 *crescere*와 *con*이 결합된 *concretere*이며 형성되다 *be formed*라는 의미이다. 파악들의 단계적 총합이다.

정에서 객체화되는 결합체가 새로운 주체에 수용되는 순간마다 지속의 관계가 나타난다. 단순히 분리된 존재로 남아 있는 a나 b가 아니라, a에서 b로 가는 순간의 위상에 있으면서 다중적 결합체를 이루고, 연속성과 동시성을 갖는 다른 다중적 결합체와 관계되면서 복합체 *complexity*를 형성한다.

III. 운동체계의 성립: 한국전통건축에의 적용

1. 운동체계 성립을 위한 건축적 장치

건축에서 운동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운동에 관계되는 구조적 요소와 과정적 요소로서의 건축적 장치가 필요하다. 행위가 대상을 파악하고 결합하는 과정과 같이 운동이 공간과 관계되는 운동체계를 위한 것과, 그 운동체계의 지속적 결합에 의해 그 연장적 특성을 복합적 체계로 확장시킨 운동체계를 형성하는 장치가 있다.

1) 운동-공간 체계와 건축적 장치

운동은 공간들의 수평적 연결과 수직적 레벨차이의 분리와 통합방법에 따라 공간에 끊임없이 순응하고 교차한다. 단위행위와 단위대상들의 초기적 관계의 결합과정이 전개되면서 성립되는 운동과정은 공간과 동일한 방향으로 연속되어 일치하기도 하고 엇갈리기도 하면서 복합적인 체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연속과 단절을 반복하는 운동과 공간과의 관계에 있어 공간들의 경계와 공간 내부의 어느 한 위치에서 운동이 어떠한 위상을 갖는지가 중요하다. 운동은 운동을 유도하는 장치에 의해 변형된 관계를 형성해간다.

벽과 바닥은 공간을 구성하는 수직·수평의 구조적 요소인 동시에 운동을 유도하는 과정적 요소가 되어 운동체계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장치가 된다. 벽은 운동의 정지를, 바닥은 진행을 유발시킨다. 한국전통건축에서 운동체계를 형성하는 이와 같은 건축적 장치에는 공간 경계에서의 문과 과정적 요소인 퇴와 쪽마루, 사이공간으로서의 과정적 요소인 마루와 대청, 마당이 있다. 여기서 과정적 요소의 대부분은 바닥면의 레벨차를 포함한 장치들이다.

① 공간경계의 벽과 문

운동과 관계되는 건축적 장치로서의 벽은 공간과 공간 사이를 구분하고 에워싸며 운동을 한정한다. 공간을 분할하고 통합하면서 운동의 경계를 만들고 막힌 공간과 트인 공간의 상태를 조절한다. 실내공간에서의 운동체계는 인접한 공간 사이에서 벽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기본이 되므로, 벽의 연결과 구성방법에 따라 주체의 접근 방법과 운동과정이 차별화 된다.

벽은 운동과 적극적으로 관계되는 문으로 대체될 수 있는데, 공간의 경계에 문이 설치되는지 벽이 위치하는지에 따라, 운동이 공간을 연속으로 통과하면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질지 과정적 요소에 의한 이중적 과정이 필요할지가 결정된다. 공간을 단절하고 운동을 우회하도록



그림 3. 공간경계의 분절과 통합에 의해 운동과정의 연속과 교차를 유도하는 문

유도하는 고정된 벽과는 달리, 개폐가 자유로운 문은 공간을 한정하는 경계에서 운동의 연속과 교차를 유도하여 운동과 공간의 관계를 분절하기도 하고 통합하기도 한다.

한국전통건축에서 공간 경계를 통한 운동체계는 문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사용자는 문의 열림과 닫힘을 조절하면서 공간의 경계를 연속적인 운동과정에 의해 통합할 수 있게 된다. 문은 높이에 따라 머름있는 낮은 문, 머름없는 낮은 문, 머름없는 높은 문이 있고, 여닫는 방법에 따라 여닫이문, 쌍여닫이문, 미닫이문, 들어열개문이 있다. 높은 문과 낮은 문이 인접공간과의 경계에 동시에 설치된 경우, 높이가 높은 문이 운동과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⁷⁾. 미닫이문과 들어열개문은 문의 열림이 고정되면 공간경계가 통합되어 특성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인접한 공간들이 켜를 이루면서 확장되면, 공간 경계에 위치하는 벽과 문의 역할이 커지고 운동주체가 공간을 선택하고 파악하는 가능성이 다양해진다. 공간은 질서를 갖고 일정한 틀을 형성하고 있지만, 공간의 경계를 통과하는 운동은 단위공간마다의 분절된 리듬이 연속적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된다⁸⁾. 운동은 공간 내부의 기능적 요구에 의해 제한되면서도 행위적 근접성을 갖고 공간을 파악하여, 단위공간의 열려진 끝을 인접공간으로 연장시키고 직각과 사선의 이중방향으로 연장된다.

② 과정적 요소 퇴

문에 의한 운동과정에는 위상이 문제될 수 있다. 공간 경계에서 문에 의해 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후행될 수 없는 상위위상 공간은 과정적 요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간이 단절된 것과 같으며, 상위위상과 반대 방향으로 인접한 공간들은 운동체계를 형성할 수 없다. 또 하나의 단위공간이 갖는 경계에 문이 위치해 있더라도 모든 문이 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공간을 통과하면서 연장되는 운동과정이 제한될 수 있다.

이때 한국전통주택에서는 퇴가 중요한 건축적 장치가

7) 머름이 있거나 공간경계의 레벨차가 심하면서 높이가 낮은 문은 운동과는 관련없는 창 의 역할을 한다. 단 머름이 있거나 레벨차가 있어도 높이가 높은 문은 운동과정을 위해 사용되지만 쉽게 드나들지 못하고 독립된 공간이 되게 한다.

8) 볼노브는 수직과 수평, 연결과 분리, 열림과 닫힘, 문과 방 등의 관계를 공간 속에 있음 *Im-Raum-sein*, 공간을 가짐 *Raum-haben*의 개념으로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일상적인 경험에서 이끌어 낸다. Bollnow, O. F., *Mensch und Raum*, pp.44-81.

표 1. 운동체계 성립을 위한 건축적 장치

		운동체계 성립을 위한 건축적 장치		건축적 장치에 의한 운동과정의 위상과 특성	
운동 공간 체계 / 운동 블룸 체계	공간 구조적 요소	공간과 공간 경계의 벽		공간경계 분리에 의한 독립위상	공간경계에서 운동의 정지, 우회
		공간과 공간 경계의 바닥레벨	벽 경계에서의 바닥 레벨차		공간레벨경계에서 운동의 단절
	공간 과정적 요소		공간과 공간 경계의 문	문 경계에서의 바닥 레벨차	공간경계와 레벨경계에서 독립위상과 연속위상의 이중성
		벽과 벽 사이의 틈		공간통합에 의한 연속위상	운동과정의 연속과 교차, 운동에 의한 공간경계의 변형
		공간과 공간 경계의 퇴	공간경계와 통합의 모호함에서 연속위상	공간경계에서의 운동과정 지속	
		공간과 공간 경계의 문과 퇴	과정적 요소 중심의 연속위상		
		공간과 공간 경계의 계단	연속위상의 동시적 결합	공간경계와 레벨경계의 연속위상	공간과 계단경계에서 운동의 단계적 연속과 교차
		공간과 공간 경계의 사이공간 마루와 대청	공간경계의 연속위상	과정적 요소 중심의 연속위상	운동과정의 연속과 머무름 교차
		공간과 공간 경계의 퇴와 마루	블룸경계의 연속위상		
		블룸과 블룸 경계의 사이공간 마당	블룸경계의 연속위상	블룸경계와 레벨경계의 연속위상	계단통로 경계에서 운동의 단계적 연속과 교차
운동 블룸 체계	공간 구조적 요소	블룸과 블룸 경계의 계단통로	공간과 블룸의 통합과 분리의 반복에 의한 연속위상과 독립위상의 교환	블룸레벨경계에서 운동의 연속과 단절, 교차의 반복	
		공간과 블룸 경계의 마당과 쪽마루	위상의 복합화		

된다. 실내공간의 경계가 벽으로 막혀 있거나 운동이 불가능한 머무름이 있는 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되는 공간 사이의 운동을 발생시키는 과정적 요소가 된다. 가장 기본적인 퇴의 역할은 공간의 경계가 벽으로 차단되어 있을 때 사용자 주체의 선택이 특별히 작용하지 않아도 단선적으로 운동을 유도하는 과정적 요소로 사용된다.

위상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서로 다른 건축적 장치인 문과 퇴가 동시에 공간 사이의 운동과정을 유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을 통과하는 운동과정이 퇴에 의한 운동과정보다 선행된다.

③ 실내공간 경계의 사이공간 마루

공간경계에 위치한 마루는 독립된 공간인 동시에 운동과정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과정적 요소 역할을 한다. 또 실내공간에서는 퇴와 이중적인 과정적 요소를 형성하면서 복합적인 운동체계를 만들기도 한다.

④ 공간경계의 바닥레벨

벽이 공간을 수직적으로 분절하고 통합하면서 운동에 연속성과 방향성을 준다면, 바닥면의 레벨차는 사용자의 운동과 정지를 유발하는 장치가 된다. 수평적으로 같은 공간관계를 형성한다고 해도 레벨차가 변화됨에 따라 그 경계면에서의 운동과정이 달라지므로, 벽이나 문의 역할과 동시에 바닥은 운동체계에 있어 중요하다.

⑤ 공간경계의 계단

바닥면의 변화에 있어서 일반적인 방법은 공간의 경계면에 위치한 과정적 요소로서 레벨차가 있는 인접공간을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계단장치의 도입이다. 그런데 레벨차가 있는 공간 사이에서 계단의 방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공간과 운동의 방향이 일치되는지, 두 공간 사이에



그림 4. 레벨차에 의한 운동의 단절과 흐름(윤증고택)



그림 5. 레벨차에 의한 사이공간(香壇)

직각으로 엇갈려 운동이 공간들을 가로질러 교차되는지에 따라 운동체계는 달라진다. 후자의 경우에는 레벨차의 경계에서 공간방향에 순행하는 직접적인 운동과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운동에 의해 공간은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분리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2) 운동-블룸 체계와 건축적 장치

공간들의 관계에서 성립된 운동체계가 연장되면서 하나의 통합된 계열로서 블룸을 형성하고 또 다른 블룸과 관계되어 확장되면서 운동-블룸 체계가 형성된다. 운동-공간 체계에서 중요하게 드러났던 벽은 운동-블룸 체계에서 부피가 있는 공간으로 확장되어 대체된다. 공간은 운동체계를 형성하는 대상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간들을 위한 과정적 요소로서의 사이공간이 될 수 있다. 또 바닥면은 블룸의 경계를 통합할 수 있는 장치가 되고, 바닥면의 레벨차가 커지면서 공간의 경계가 블룸의 경계로 변화되면 계단은 통로형식이 되면서 운동

을 유도하는 과정적 요소가 된다.

⑥ 볼륨경계의 계단통로

인접한 공간 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리된 두 공간 또는 두 볼륨 사이는 제3의 매개물이나 공간에 의해 상호연결 되거나 연관성을 갖게 된다. 두 공간의 시·공간적 관계는 그들을 연계시키는 매개공간의 성격에 좌우된다. 한국전통건축에서 매개공간의 성격은 통로나 계단통로라는 형태에 반영된다.

순차적으로 연속되는 바닥면과 계단이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공간과 볼륨을 통합하는 운동과정을 형성하는 장치라고 한다면, 통로나 계단통로는 운동에 의한 연속성으로 분리된 볼륨과 볼륨 사이의 폐쇄와 개방감을 조절하는 장치이다. 한국전통건축에서 주로 단차가 있거나 층이 나뉘어 있는 볼륨 사이에 위치하는 계단통로는 좁고 가파르기 때문에 통로 내부에서 바닥이 상승함에 따라 긴장감이 더하게 된다. 통로는 움직임의 연속선상에서 확장과 축소를 반복하게 하고 공간이동에 속도감을 붙이는 선적 공간으로 존재한다. 주공간과 통로에서의 공간감은 움직임과 멈춤을 자연스럽게 반복시키고, 운동과정에 따라 동적 리듬있는 경험을 유도한다.

⑧ 볼륨경계의 사이공간

채와 채 사이 또는 채와 마당 사이에서 각 영역을 분리하면서도 서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사이공간이 배치된

다. 두 영역은 단절되는듯하면서도 영역이 전환되는 지점에서 운동에 의해 연속된다. 특히 대지의 레벨차와 배치관계에 따른 채와 채 사이의 공간 형태, 즉 건물 사이의 폭, 건물의 높이, 길이는 거리감과 깊이감, 그리고 운동체계를 변화시킨다. 운동과정에 있어 열림과 닫힘의 중간 단계를 만들거나 공간 이동에 과정적인 암시를 하기도 한다.

⑨ 사이공간 마당과 과정적 요소 쪽마루

부분적인 공간들 사이에서 형성된 운동체계는 실내공간 전체에 확장되는데, 한국전통건축에서는 마당을 과정적 요소로 삼고 채의 경계에서 운동체계가 연장된다. 마당은 대청이나 쪽마루와 연결되면서 실내에서 형성된 운동체계를 교차적으로 연장시키게 된다. 단위공간 사이에서의 형성된 운동체계는 운동과정에 의해 연속성을 갖고 전체 운동체계를 형성하는 또 다른 운동체계와의 결합을 통해 연장된다.

2. 한국전통주택 운동체계의 특성

운동체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축적 장치들과 운동의 관계를 분석하고, 여기에 운동체계 이론과 특성들을 연관시키면 한국전통주택의 운동체계의 기본적인 특성이 성립된다. 단위공간에 대한 단위행위의 파악에 의해 형성된 독립적인 운동과정이 연속성을 갖고 반복적인 결합과정을 이어나가면서 결합체를 형성하게 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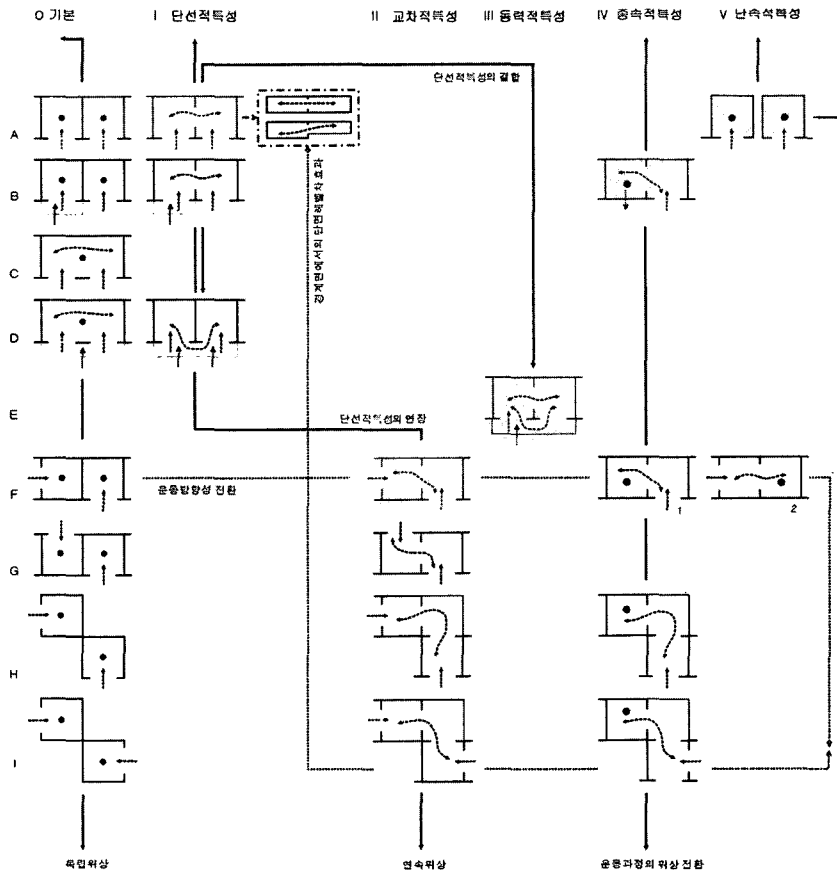


그림 6. 한국전통주택 운동체계의 기본 특성

단선적 특성이 성립된다. 이때 운동이 발생하는 경계의 열린 부분에 위치와 방향성의 문제가 나타나면 단선적 운동과정에서 파생된 교차적 특성이 나타나고, 단선적 혹은 교차적 운동과정의 위상이 차별화 되면서 이중성을 갖고 결합되면 단선적 운동과정이 병렬적으로 결합된 동렬적 특성이 나타난다. 단선적으로 또는 교차적으로 진행되는 운동과정 중에 진행하던 방향에서 역전하게 되면 종속적 특성이 형성되는데, 주된 운동과정과 부차적인 운동과정이 하나의 체계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면, 중심적 운동과정에서 부차적 운동과정으로 이어지는 순간 연속된 위상으로 진행되던 운동과정이 독립된 위상으로 전환된다. 운동의 과정이 어떠한 형태로든 연속성을 유지하지 않고 운동을 단절시키는 요소에 의해 연속과 단절을 반복하면 운동과정은 단속적 특성을 갖게 된다. <그림 6>은 단위공간과 단편적 운동에 의해 형성된 전통주택 운동과정의 기본적 특성이다. 각 특성들은 상호관련성을 갖고 연속성과 동시성의 위상변화를 경험하면서 결합과 연장과정을 통해 전체 운동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IV. 한국전통주택의 운동체계: 실례분석

1. 관가정

관가정에서 형성되는 주요 운동체계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안마당은 안채 실내공간 뿐 아니라 사랑채와의 운동체계 형성에도 관여하는 공간으로, V1과 V2, V3 사이에서 과정적 요소가 된다⁹⁾. 안마당을 거쳐 안채의 안방, 안대청, 건넌방으로부터 시작되는 운동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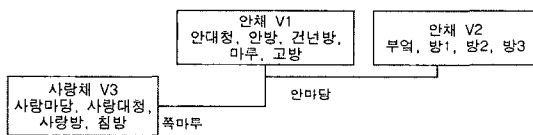


그림 7. 관가정 안채와 사랑채의 운동체계 V1, V2, V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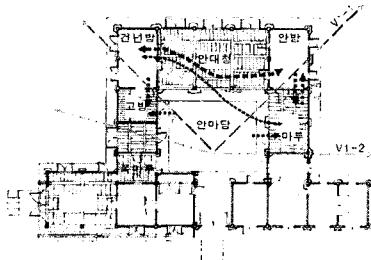


그림 8. 안대청 중심의 V1-1과 안마당으로 연장되는 V1-2의 운동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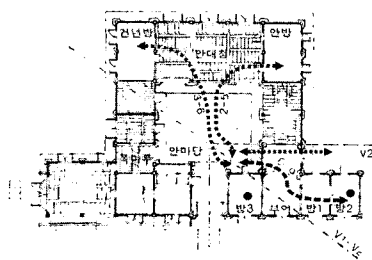


그림 9. 안채 V1-V2 사이에서의 운동체계와 V2의 운동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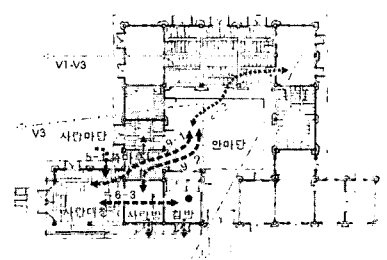


그림 10. 사랑채 V3의 운동체계와 V1-V3의 운동체계

V1과 사랑마당에서 시작되어 사랑대청, 사랑방에 이르는 운동체계 V3가 중심을 이루고, V1-V3 사이에서 발생하는 운동체계에 의해 전체 운동체계가 완성된다. 안마당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안채의 부엌과 방들의 운동체계 V2는 안채 전체에 대해 독립위상으로 존재한다.

1) 안채 V1의 운동체계

① 안대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운동체계 V1-1

안마당에서 안방과 건넌방으로의 운동체계는 안대청이 과정적 요소가 되므로, 안방과 건넌방은 안대청에 대해 연속적으로 후행하면서 독립된 위상을 갖게 되어 종속적 운동체계를 형성한다. 또한, 안방에서 안대청, 건넌방 사이 실내공간에서의 운동체계에 있어서는 안대청이 안방이나 건넌방과 동일한 위상을 갖는 단위공간이 되어 단선적 운동과정이 성립된다. 안대청과의 경계에 위치한 문은 안방과 건넌방 모두 개구부 높이가 높은 여닫이문과 낮은 여닫이문으로 구성되어 기능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한다. 마루는 안방과의 경계가 분합문으로 되어 열린 상태로 통합될 수 있어서,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는 안방과 안대청의 운동과정보다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안방과 안대청, 안방과 마루의 관계에서 보면 서로 동시성을 갖지만, 마루는 안방에 대한 하위위상으로 전체 운동체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안방과의 단편적 운동체계로 한정된다.

② 안마당으로 연장되는 운동체계 V1-2

안방과 마루의 운동과정은 안대청과 마루 사이에서의 운동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안대청에서 마루로의 운동 과정에는 안방이나 안마당을 과정적 요소로 삼게 되는데, 안방은 대청이나 마루보다 상위위상으로 존재하므로 안방보다는 안마당으로 연장되는 운동체계가 이루어진다. 안방은 서로 다른 기능의 공간들 사이에서 과정적 요소가 되지 못하고 안방과 안대청, 안방과 마루 등 단위공간 사이의 운동과정으로 한정되어, 안마당과의 운동과정에서 뿐 아니라 마루에 대해서도 종속적 특성을 내포하

9) 공간이라는 것은 건물 내부의 비어있는 단일한 단위공간을 말하며, 공간 내부에서 다른 공간의 내부로 운동이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볼륨은 공간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결합되어 있는 전체 부피를 말하는 것인데, 볼륨을 구성하는 공간들 사이에서 운동이 진행될 수 있는 범위까지를 하나의 볼륨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한국전통주택에서 채는 단일볼륨을 의미하게 되지만, 운동체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볼륨을 구성하는 공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운동의 연속과 단절에 의해서 하나의 채가 여러 개의 부분볼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논문의 V1과 V2, V3는 운동체계에 의해 형성되는 부분볼륨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2. 안채 V1의 안대청을 중심의 운동체계 V1-1

운동체계 과정	건축적 장치	유형
안마당→안대청→안방	레벨차, 열림, 높은 외 여닫이문	IV-H
안방→안대청→안마당	높은 외여닫이문, 열림, 레벨차	II-H
안마당→안대청→건넌방	레벨차, 열림, 높은 외 여닫이문	IV-H
건넌방→안대청→안마당	높은 외여닫이문, 열림, 레벨차	II-H
안방↔안대청↔건넌방	높은 외여닫이문, 높은 외여닫이문	IV-F1연장

표 3. 안채 V1-2의 선택적 운동체계

운동체계 과정	건축적 장치	유형
안방→마루	들어열개문	I-A
안대청→안마당→마루	열림, 레벨차, 레벨차, 열림	II-H
안대청→안방→마루	높은 외여닫이문, 분합문	II-H
건넌방→안대청→안방→마루	높은 외여닫이문, 높은 외여닫이문, 들어열개문	II-H
건넌방→안대청→안마당→마루	높은 외여닫이문, 열림, 레벨차, 열림	II-H연장

표 4. 안채 V2의 및 V1-V2 사이에서의 운동체계

운동체계 과정	건축적 장치	유형
안마당→부엌→방1→방2	레벨차, 쌍여닫이문, 레벨차, 여닫이문, 쌍여닫이문	IV-I연장
안대청→안마당→부엌	레벨차, 열림, 레벨차, 쌍여닫이문	II-H
안방→안대청→안마당→부엌	높은 외여닫이문, 열림, 레벨차, 레벨차, 쌍여닫이문	II-H연장
건넌방→안대청→안마당→부엌	높은 외여닫이문, 열림, 레벨차, 레벨차, 쌍여닫이문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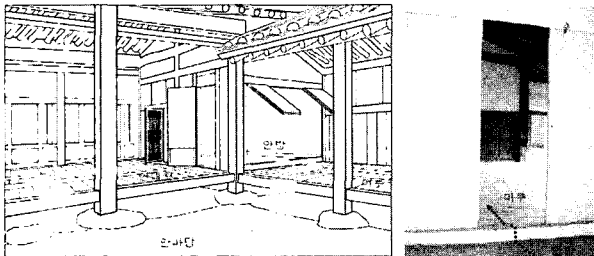


그림 11. 연속위상에서 독립위상으로의 전환에 의한 안대청과마루 사이의 교차적 운동체계와 안방과 마루에서의 단편적 운동과정

고 있다. 건넌방에서 마루로의 운동과정도 문을 통과하는 단선적 과정이 가능하지만, 안방과 건넌방을 사용하는 주체가 다르므로 안마당을 과정적 요소로 삼고 진행된다. 안대청과 안방과 마루의 경계에 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단선적 운동과정이 연장되는 운동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의 볼륨안에서 운동이 가능하도록 건축적 장치가 이루어져 있어도 연속되는 공간의 위상과 기능 차이,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운동체계가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2) 안채 V2의 운동체계

마루 아래의 부엌과 방들로 구성되는 V2 역시 안방이나 건넌방과의 운동과정에서 안마당을 과정적 요소로 삼게 된다. 안채 전체에 대하여 독립된 위상으로 존재하

표 5. 사랑채 V3 운동체계

운동체계 과정	건축적 장치	유형
사랑대청→사랑마당	머름 쌍여닫이문, 높은 외여닫이문, 레벨차	I-A
사랑대청↔사랑방↔침방	들어열개문, 들어열개문	IV-F2지속

표 6. 안채와 사랑채 V1-V3 사이의 운동체계

운동체계 과정	건축적 장치	유형
사랑대청→쪽마루→안마당	낮은 외여닫이문, 열림, 레벨차	II-I연장
사랑방↔쪽마루→안마당	높은 외여닫이문, 열림, 레벨차	II-I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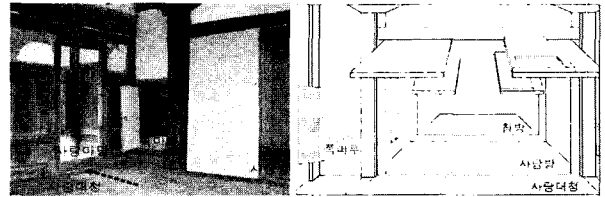


그림 12. 사랑대청에서 침방으로의 운동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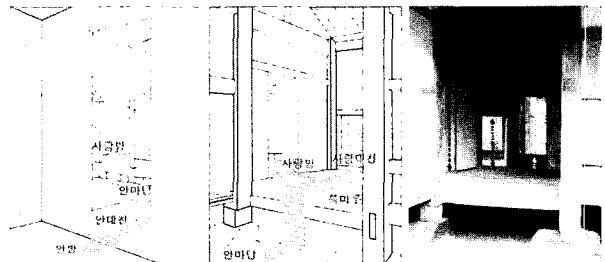


그림 13. 쪽마루에 의한 안방과 사랑방 사이의 운동체계, 사랑방과 쪽마루, 사랑대청 경계의 운동과정

로 운동과정에 있어 사용자의 선택 여지가 없다. 또 부엌과 안마당, 부엌과 방1은 각각 단선적 운동과정으로 이어지지만, 방1은 부엌과 레벨차에 의해 운동과정이 자유롭지 않고 방2에 이르면서 종속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3) 사랑채 V3의 운동체계

V3의 주요 운동체계는 사랑마당에서 사랑대청, 사랑방, 침방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침방에서 대청으로 되돌아 오는, 단선적이면서도 종속적인 운동과정이다. 사랑방은 사랑마당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운동과정이 형성되지 못하게 하고 사랑대청이 과정적 요소가 된다. 사랑방과 침방과의 경계는 분합문으로 되어 있어 운동을 연속시키면서도 차단할 수 있는 열림과 닫힘의 이중적 공간이 된다. 사랑방 전면에는 퇴가 있지만 볼륨 외부 레벨차의 경계면에 위치하고 있어 운동을 위한 과정적 요소로서의 퇴가 아닌, 사랑방과 침방의 발코니 역할을 한다.

4) 안채 V1과 사랑채 V3 사이 운동체계

V1-V3의 운동과정은 안마당과 쪽마루를 과정적 요소로 삼고 운동체계가 형성된다. 쪽마루의 측면에 위치한 사랑방의 경계에는 높은 여닫이문이, 정면에 위치한 사랑대청과의 경계에는 낮은 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사랑방

으로의 운동과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2. 향 단

향단의 운동체계는 안마당에서 안방, 대청, 건넌방으로부터 시작되는 V1과 사랑마당에서 사랑대청과 큰사랑방으로 또는 사랑마당에서 사랑방으로 직접 진입하게 되는 V3가 중심을 이루고, V1-V3에서 발생하는 운동과정에 의해 전체 운동체계가 완성된다. 안채에 대해 독립된 위상으로 되어 있는 책방과 마루의 V2는 안마당과 정지를 과정적 요소로 삼고 V1과의 운동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1) 안채 V1의 운동체계

안방과 대청, 건넌방에 안마당을 포함하는 V1은 이중으로 켜를 이루고 있는 공간구성이 된다. 각 공간의 경계면은 모두 문을 설치하여 네 면이 모두 인접공간에 대해 열려있다. 따라서 V1의 모든 운동체계는 문의 위치에 의해 방향성을 갖고 각 단위공간 사이에서의 단선적 운동체계가 연장되면서 교차적 운동체계를 이룬다. 건넌방에서는 이러한 교차적 운동과정이 계단에 의해 다락방에까지 연결되면서 종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V1의 공간들은 모든 인접공간과의 경계에서 운동과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안방과 안대청, 건넌방과 안대청 사이에서 보면, 높이가 다른 두 문이 설치되어 있어 하나는 운동체계를 형성하고 다른 하나는 시각적 관망을 위해 사용된다. 또 안방과 정지 사이, 건넌방과 정지 사이의 문은 높이가 낮고 레벨차가 있어 운동과정을 위한 문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문들의 위치가 엇갈려 있거나 문의 높이에 차이를 두는 등 문의 종류가 다양하게 되어 있어 위상과 기능이 다른 인접공간으로의 운동을 유도하거나 차단하는 조절 역할을 하게 된다.

2) 안채 V1과 V2 사이의 운동체계

안방과 안대청에서 책방에 이르는 운동과정이 중심이

되는 V1과 V2 사이에서도 문과 레벨차에 의해 운동체계가 형성된다. 안방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책방과 면해 있지만, 안방과 통로 사이의 낮고 레벨차가 큰 문은 운동을 유도하지 않는다. 따라서 안방에서 안마당을 거쳐 책방에 이르게 되는데, 책방 옆 마루는 안마당에서 열린 상태의 과정적 요소가 되므로 통로의 책방문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체계보다 우선적으로 형성된다.

3) 사랑채 V3의 운동체계

표 7. 안대청과 안방 중심의 안채 V1 운동체계

운동체계 과정	건축적 장치	유형
안마당→안방	레벨차, 퇴, 외여닫이문	I-A
안마당→안방→안대청	레벨차, 퇴, 외여닫이문, 쌍여닫이 미닫이 이중문	II-H
안마당→안대청	레벨차, 퇴, 열림	II-H연장
안방→안대청→건넌방	쌍여닫이 미닫이 이중문, 외여닫이문	II-H

표 8. 안채 V1과 V1-V2 사이에서의 선택적 운동체계

운동체계 과정	건축적 장치	유형
안방→안마당→통로→정지	외여닫이문, 퇴, 레벨차, 열림, 열림	II-H연장
안방→정지	낮은 여닫이문, 레벨차	I-A
안방→안마당→통로→책방	외여닫이문, 퇴, 레벨차, 열림, 레벨차, 쌍여닫이문	II-H
안방→안마당→마루→책방	외여닫이문, 퇴, 레벨차, 레벨차, 열림, 외여닫이문	II-H연장

표 9 사랑채 V3의 운동체계

운동체계 과정	건축적 장치	유형
사랑마당→사랑대청→큰사랑방	레벨차, 열림, 외여닫이문	IV-H
사랑마당→사랑방	레벨차, 퇴, 쌍여닫이문	I-B
큰사랑방→사랑대청→사랑방	외여닫이문, 퇴, 쌍여닫이문	II-H 연장

표 10. 안채와 사랑채 V1-V3 사이에서의 운동체계

운동체계 과정	건축적 장치	유형
큰사랑방→안마당	높은 외여닫이문, 퇴, 레벨차	II-I
사랑방→안마당	낮은 외여닫이문, 퇴, 레벨차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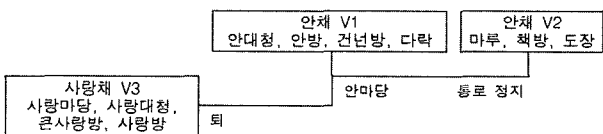


그림 14. 향단 안채와 사랑채의 운동체계 V1, V2, V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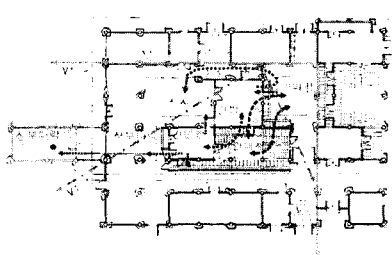


그림 15. 안대청, 안방 중심의 V1과 안마당, 정지로 연장되는 V1-2의 운동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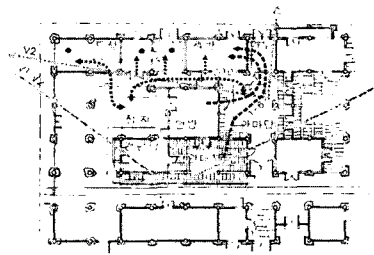


그림 16. 안채 V1-V2 사이에서의 운동체계와 V1의 2의 운동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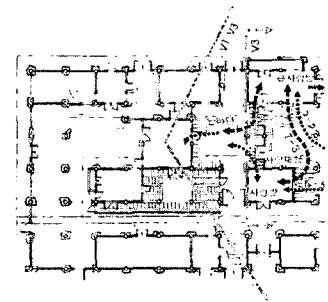


그림 17. 사랑채 V3의 운동체계와 V1-V3의 운동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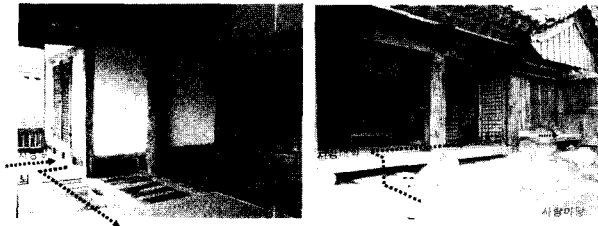


그림 18. 과정적 요소로서의 퇴와 운동과정이 불가능한 퇴 설치에 의한 사랑방과 큰사랑방의 차별적 운동체계

사랑채 큰사랑방과 사랑방은 운동과정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큰사랑전면의 퇴는 과정적 요소는 되지 못하고 발코니 역할만을 하므로 사랑대청을 과정적 요소로 삼는 종속적 운동과정이 성립된다. 반면, 사랑방은 전면의 퇴가 과정적 요소가 되므로 사랑대청을 거치지 않는 단순한 과정이 된다. 또 큰사랑과 사랑대청 사이의 운동체계는 공간 경계에 설치된 문으로 단선적 운동체계를 이루는 반면, 사랑방은 사랑대청과의 경계가 벽으로 막혀 있어 전면의 퇴를 과정적 요소로 삼아야만 사랑대청과 운동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랑방은 사랑마당과 사랑대청 모두에 대하여 독립적인 공간이 된다.

4) 사랑채와 안채 사이의 운동체계 V1-V3

큰사랑방과 사랑방은 퇴와 연결되는 문과 사랑대청 뒤의 퇴를 통해서 안마당에 접하게 되는데, 사랑대청의 판장문을 경계로 단선적 운동체계가 결합되어 있는 동렬적 운동과정이 성립된다.

3. 소 결

관가정과 향단 안채와 사랑채에서의 운동체계를 종합하면 <표 11, 12>와 같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운동주체로서의 사용자와 그 대상인 건축공간의 관계를 운동체계 이론으로 조명해 보고, 운동체계를 형성하는 건축적 장치를 통해 운동체계 유형을 제시하여 관가정과 향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전통주택은 공간구성적 특성은 다르더라도 운동적 측면에서의 조영원리는 계획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채의 중심인 안방과 대청, 건넌방의 운동체계를 보면, 관가정에서는 단선적 운동과정이 연장되면서 종속적 운동과정이 삽입된 특성으로, 향단에서는 단선적 운동과정이 연장된 특성으로 나타난다. 공간배치가 서로 다르게 구성으로 되어 있더라도 운동과정에 있어서는 단선적 운동체계를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공간과 볼륨이 확장되고 첨가되더라도 기본유형의 운동체계는 변화되지 않는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서는 교차적 운동과정이 연장된 특성으로 나타난다. 안채가 사랑채로 확장된 볼륨으로 되

표 11. 관가정 안채와 사랑채의 운동체계 형성

구분	운동체계 형성	운동체계 형성을 위한 건축적 장치	유형	운동체계형성조건	
V1	안마당↔안대청 ↔안방	레벨차, 열림, 높은 여닫이문	IV-H	안채 주요 운동체계, 독립위상, 운동과 관련된 문의 종류 선택	
	안방↔안대청 ↔건넌방	높은 여닫이문, 높은 여닫이문	IV-F1 연장		
	안마당↔안대청 ↔건넌방	레벨차, 열림, 높은 여닫이문	IV-H	단편적 운동과정	
	안마당→마루	레벨차, 열림	O-A		
	안마당→고방	레벨차, 여닫이문	O-A	연속위상에서 독립 위상으로의 전환, 단편적 운동	
	안방→마루	분합문	I-A		
	안대청→안마당 →마루	열림, 레벨차, 레벨차, 열림	II-H		동시성과 위상의 연 전에 의한 주체의 운동과정 선택
	건넌방→안대청 →안마당→마루	높은 여닫이문, 열림, 레벨차, 레벨차, 열림	II-H 연장		
V2	안방↔안대청 →안마당→고방	높은 여닫이문, 낮은 여닫이문, 레벨차, 열림, 레벨차, 여닫이문	II-H 연장	위상의 역전에 의한 연속공간사이에서의 운동차단	
	안마당→부엌 →방1→방2	레벨차, 쌍여닫이 문, 레벨차, 여닫 이문, 쌍여닫이문	IV-I 연장		문과 레벨차에 의한 독립위상 연장
V1 -V2	안방↔안대청 →안마당→부엌	높은 여닫이문, 열림, 레벨차, 레 벨차, 쌍여닫이문	II-H 연장	부분볼륨 사이의 필연 운동체계	
	건넌방→안대청 →안마당→부엌	높은 여닫이문, 열림, 레벨차, 레 벨차, 쌍여닫이문	II-I		
V3	사랑대청↔사랑방 ↔침방	분합문, 분합문	IV-F2 지속	연속위상과 독립위상의 교환	
V1- V3	사랑대청↔쪽마루 ↔안마당	낮은 여닫이문, 열림, 레벨차	II-I 연장	사용주체의 차별화 에 의한 공간구분과 운동과정의 교차적 연장	
	사랑방↔쪽마루 ↔안마당	높은 여닫이문, 열림, 레벨차	II-I 연장		

어 있는 관가정에서는 안마당과 사랑방 사이에 쪽마루를 두어 공간과 운동과정을 모두 교차적으로 이끌어주고, 서로 다른 볼륨으로 되어 있는 사랑채와 안채가 단선적으로 접해 있는 향단에서는 퇴와 문의 경계를 조절하여 교차적 운동과정이 연장되도록 하였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직접적인 운동과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방과 사랑방 사이에 퇴를 단절하거나 기능이 다른 사이공간을 위치시키거나 또 사랑채로의 진입 자체를 측면으로 유도한 민가에서의 의도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간과 볼륨의 범위가 확장될수록 동렬적 운동과정이 전체의 운동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가정의 안방과 건넌방에서 시작되는 운동체계와 향단의 안채 볼륨에서 책방에 이르는 운동체계가 그러하며, 이 때 마당이 과정적 요소로 사용되면서 운동체계가 교차적으로 연장된다.

단선적 운동과정이 연장적 특성을 갖고 있을 때는 단속적 특성이 포함되기도 하며, 여기에는 연속되는 공간

표 12. 향단 안채와 사랑채의 운동체계 형성

구분	운동체계 과정	운동체계형성을 위한 건축적 장치	유형	운동체계형성 조건
V1	안마당→안방 →안대청	레벨차, 퇴, 여닫이문, 쌍여닫이 미닫이 이중문	II-H	안채 주요 운동체계, 동시성, 연속위상, 운동과 관련된 문의 종류 선택
	안방↔안대청 ↔건넌방	쌍여닫이 미닫이 이중문, 여닫이문	II-H	
	건넌방→다락	여닫이문, 계단	IV-F2	레벨차에 의한 연속위상에서 독립위상으로의 전환
V1-V2	안마당→통로 →정지	열림, 열림	II-H 연장	건축적 장치 부재에 의한 연속위상, 운동방향 전환에 의한 공간분리
	안방→안마당 →마루→책방	여닫이문, 퇴, 레벨차, 열림, 여닫이문	II-H 연장	
	안대청 →안마당 →마루→책방	열림, 레벨차, 열림, 여닫이문	II-H II-I	
V3	사랑마당 →사랑방	레벨차, 퇴, 쌍여닫이문	I-B	과정적 요소의 차이에 의한 운동과정의 차별화
	사랑마당↔사랑대청↔큰사랑방	레벨차, 열림, 여닫이문	IV-H	
	큰사랑방↔사랑대청↔사랑방	여닫이문, 퇴, 쌍여닫이문	II-H 연장	과정적 요소의 이중성에 의한 연속위상
V1-V3	큰사랑방↔안마당	높은 여닫이문, 퇴, 레벨차	II-I	사용주체 차별화에 의한 공간구분, 의도적인 운동과정의 교차적 연장
	사랑방↔안마당	낮은 여닫이문, 퇴, 레벨차	II-I	

의 위상과 기능 차이, 공간 경계의 건축적 장치, 운동주체의 선택 등이 주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 또 관가정의 침방이나 향단의 다락과 같은 종속적 운동체계는 중심 *main* 운동체계에 삽입된 것이므로, 주체의 선택 없이도 운동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연구과정은 기본적인 구성을 갖고 있는 소규모 민가에서부터 다양한 공간적 특성을 보이는 상류주택에 적용하여 구조, 평면유형, 내·외부공간의 관계, 영역성과 위계성 등의 접근방법과 더불어 운동체계의 측면에서 보이는 특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한국전통주택을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Deleuze, G., *Logique du Sens*, ed. de Minui (1969). 이정우 역, 의미의 논리, 한길사, 1999.
2. Habraken, N. J.(1988). *The Structure of the Ordinary*. MIT Press, 김억중 역, 일상의 건축, 기문당, 2000.
3. Pile, S.(1996). *The Body and the City: Psychoanalysis, Space and Subjectivity*, RKP.
4. Whitehead, A. N.(191). *Process and reality : an essay in cosmology*, 오영환 역, 과정과 실재, 민음사.
5. 김동욱(1997).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6. 김홍식(1992). *한국의 민가*, 한길사.

(接受 : 2004. 11. 12)